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음 11월 23일) 제19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안전망 구축

전주시,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피해 예방
조기발견·재발방지 사후관리 등 3단계 대응체계 추진

전주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아이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아동친화도시 전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의무가 있는 경찰서와 아동관련 NGO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재발방지 사후관리의 아동학대 3단계 대응체계를 구축,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매뉴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먼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가족 갈등예방 및 해소방법, 자녀이해 및 육아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부모, 아동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의무 정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의 경우 학대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에 참여시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집, 양육시설,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와 도서관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2단계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심리치료를 진행해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필요시 아동권리침해 구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와 전문상담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아동학대가 종료 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을 관찰하는 등 2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이들은 도시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먼저 아이들을 봐야 한다"며"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보육과 교육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대표 '무혐의'

업무상배임·명예훼손 등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대표가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고소당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주민 A씨와 B씨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수급대상자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정관을 만들어 지원대상자를 늘려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수령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지원금 25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진 위원장은 "전주시 (지급대상) 시행규칙대로라면 지난 2014년 5월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음식물쓰레기 냄새 피해를 과거 주민만 입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계획공고 이후 이사 온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지원금액은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약속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체 정관을 개정했고, 정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검은 A씨 등이 고소한 지원금 부당 지급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됨 점, 관련법(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가구별 지원 규모 등은 협의체가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 전주시가 (협의체) 정관 개정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진 위원장은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며 "주민 갈등 봉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社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1통,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 주 매 일

"6월 항쟁·촛불혁명처럼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송하진 도지사, 87년생 87세대 소통간담회서 강조

송하진 도지사(사진)는 전북도청 87세대 사무관(1968년생)과 1987년생 직원 등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항쟁 세대(87세대)와 촛불혁명 세대(1987년생)가 상호 소통·공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아울러, 영화 '1987'도 함께 관람했다.

이날 송 지사는 직원과의 간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전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1987년 6월 항쟁과 지난해 촛불혁명처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실천하는 용기가 전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위해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우리 안의 열패감은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통 간담 후, 영화 관람에는 87세대(1968년생) 직원, 1987년생 직원, 간부 등 120명이 함께 했다.

/김진성 기자

영업기능 강화·디지털본부 신설… 전북은행, 조직 개편 단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영업 기능 및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비이자 사업 총괄업무를 영업전략본부에 집중하고, 일반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력 제고를 위해 영업추진부서의 역할을 조정, 조직의 민첩성을 높였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본부(디지털전략부·디지털사업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여신감리부 산하 리스크검증팀을 신설했다. /김민근 기자